

‘양구에서 살아보기’로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

양구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실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양구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도정중앙면 두무산촌마을과 동면 약수산마을을 두 곳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두무산촌마을 6가구 7명, 약수산마을 12가구 15명이 참여해 지역 농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체험을 이어갔다.

현재 접수 중인 프로그램은 동면 약수산마을에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4월부터 12월 까지 약 8개월간 마을에 거주하며 농촌의 삶이 깊어 갈수록 경험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로, 총 67가구(8명)를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사과·오미자 등 지역 농특산물 수확 체험을 비롯해 감자옹심이, 고추장·전통주 만들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모내기, 벼 수확 등 농촌 일손 돕기, 귀촌 이해 교육, 주민과의 교류 시간 등 실제 농촌 생활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농업기계 작동법 교육과 실습, 마을 문화 탐방 등도 함께 진행되며, 마을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정착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연수생으로 선정되면 농촌체험마을 또는 귀농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0만 원의 연수비가 지원된다. 참여 희망자는 그린대로 누리집(https://www.greendae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강원특별자치도, ‘AI 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사업 선정

국비 150억 원 확보, AI와 피부 의료데이터 활용 개발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원스톱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AI 융합 에스테틱 글로벌 사업화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과 피부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AI 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부터 인·허가,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5년간 총 217억 원(국비 150억, 지방비 67억) 규모로 추진된다.

이번 선정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 거점으로 성장해 온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존 진단·치료 중심 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에스테틱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테틱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은 피부·미용·비침습 치료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기술 접목과 함께 기술력과 임상 기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도는 그간 축적해 온 의료기기 산

업 인프라와 기업 집적도를 바탕으로 에스테틱 분야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 에스테틱 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 ▲ 임상 및 인허가 ▲ 해외시장 수출지원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은 이미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제는 AI 기술과 피부 의료데이터를 접목해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켜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스테틱 의료기기 분야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관동해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수소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 주재로, 도 수소사업 정책의 연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정책·산업·연구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기자

춘천시 직원 생성형 AI 실습교육 실시 행정혁신

춘천시가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공직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중심 교육에 나선다.

시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생성형 AI 활용 실습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6급 이하 직원 48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보고서 작성, 데이터 요약, 콘텐츠 제작, 업무 자동화 등 실제 행정업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과정은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 수준별로 운영된다. 초급과정은 생성형 AI의 기초 활용과 보고

서·PPT 작성 등 기본 업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중급과정은 자동화 설계와 문서 생성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실습 역량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해 반복업무를 줄이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 확대해 행정 현장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동해시,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거행

동해시는 오는 3월 27일(금) 오전 11시, 해군제1함대 군항 통제관에서 동해시재향군인회(회장 박윤송) 주관으로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

이번 기념식은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를 주제로, 조국을 수호하다 사화한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평화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적 다짐을 새기기 위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신규언 동해시장, 최이순 동해시의회 부의장, 해군제1함대 사령관, 보훈·안보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박윤송 동해시재향군인회 회장은

“조국을 지키다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규언 동해시장은 “희생과 헌신으로 자유와 평화를 지켜온 호국 영웅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 모두가 국가수호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 천안함 피격사건(2010), 연평도 포격전(2010)에서 전사한 55용사의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지정 기념되고 있다.

속초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3월 27일 본격 시행

살던 곳에서 누리는 건강한 일상, 지역사회 중심 속초형 통합돌봄 실현



속초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고령자와 퇴원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보건·의료, 요양·돌봄, 일상생활 지원, 주거복지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살던 곳에서 누리는 건강한 일상’ 실현에 나선다. 시는 본사업 시행에 앞서

전담 조직과 통합돌봄 전담장구를 정비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담당자 직무교육과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인력·서비스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왔다.

특히 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지역사회 조직화를 아우르는 속초형 통합돌봄 10대 특화사업을 마련해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사업은 ▲1동 1주치의 ▲퇴원환자 통합돌봄 ▲방문약료사업 ▲집으로 ON 케어 ▲잇·다! 속초 ▲보양밥상 ▲Re:스위트 홈 ▲

케어안심주택 ▲찾·다!속초 ▲속초형 통합돌봄 자원백서다.

먼저 1동 1주치의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살던 곳에서 의료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속초시는 지난 1월 관내 의료기관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 단위 방문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퇴원환자 통합돌봄 사업은 퇴원환자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5월 관내 병원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원 전후 맞춤형 돌봄서비스 연계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 상담과 관리를 지원하는 ‘방문약료사업’,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단기간 재가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으로 ON 케어’, 중증돌봄대상자 발생 시 돌봄 활동가가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잇·다!속초’, 퇴원 후 회복기 대상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양밥상’ 등을 추진한다.

김민석 기자

평창군, 「Care on 평창 통합 돌봄」 업무 협약

평창군이 26일 오후 3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내 통합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6개 전문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건강 지원을 아우르는 촘촘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보건의료 ▲일상생활 돌봄 ▲퇴원 후 가정 복귀를 돕는 퇴원 환자 연계사업 등 3대 핵심 분야 6개 전문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평창군과 함께 ▲대상자 공동 발굴 및 사후관리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핫라인 구축 등 견고한 체계를 유지하며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평창군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읍면 사무소와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기반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서진 군 가족복지과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군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는 평창형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주시, 희망택시 결제방식 대폭 간소화



원주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이용 편의를 위해 원주 희망택시의 결제 시스템과 호출 방식을 개선했다.

그동안 희망택시는 전용카드로 1차 결제를 한 뒤, 본인 부담금 1,700원을 별도 지불하는 번거로운 이중 결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이용객 대부분이 고령층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절차는 이용 기피와 혼선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시는 희망택시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4월 1일부터 결제 방식을 단순화한다. 앞으로 이용자는 택시 하차 시 별도 전용카드 없이 본인 부담금 1,700원만 결제하면 모든 정산 절차가 완료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의 희망택시 전용카드는 폐지되며, 이용자들은 별도의 카드 소지 없이도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호출 방식도 이원화된다. 전화 호출은 원주 콜센터(☎033-766-5000)를 통해 가능하며, 앱 호출은 ‘티머니GO’ 앱의 교통약자 탭을 이용하면 된다. 단, 부른면 지역은 시스템 여건상 당분간 기존 전용카드 방식을 유지하며, 향후 인프라가 갖춰지는 대로 개선된 결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재순 대중교통과장은 “희망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면밀히 살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과천시 40주년 기념

과천시, 2025 민원서비스평가 최고 등급 '가등급'

행정안전부 ·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평가

신뢰받는 행정

함께하는 과천

가 최고 등급

40th ANNIVERSARY I Am 과천 We Are 과천